사랑 · 나눔경영실천으로지역사회에헌신

정 성 욱 (주)금성백조주택 회장

“ 기업은 지역민과 같이 성장할 때 발전할 수 있어 ”

지난달 20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계룡4거리에 있는 한 주택전시관 개관식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통상 모델하우스 입구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는 축하 화환과 화분 대신에 무언가 서명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금성백조주택은 이날 대전 도안 신도시 13블록 ‘ 예미지 ’ 아파트의 주택전시관 문을 열며 각 관련 업체에서 보내주는 축하 화환과 화분 대신에 본격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연탄을 기증받았다. 이름하여 ‘ 사랑의 연탄 기증 ’ 행사. 이틀만에 160여 개의 업체와 개인들이 참여하여 3만6,000장의 연탄이 모아졌다. 금액으로 치면 1,700만원에 달한다. 금성백조주택의 정성욱 회장은 “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오픈식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금성백조주택이 되기 위하여 ‘ 사랑의 연탄 기증 ’ 행사를 마련했다 ” 고 말했다.

정성욱 회장은 일에 관한 한 조금의 빈틈도 없다. 맨손으로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직접 현장에서 모든 공정을 경험해보고, 더 나은 시공법과 품질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한 만큼 건설에 관한 한 무불통지다. 특히, 집짓는 데 있어서는 설계부터 시작해 마감재 설치에 이르기까지 ‘ 도사 ’ 로 통한다. 지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 한 채의 미분양도 남기지 않은 데는 정성욱 회장의 이러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대형 건설사를 제치고 ‘ 전국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 ’ 을 수상하며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과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으로 금성백조주택을 대전의 대표적인 건설업체로 성장시킨 정성욱 회장은 사회공헌 및 봉사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더불어 잘 살아가고자 헌신해 온 것이다. 그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탈북자들의 모임인 새터민관리센터를 운영하였고, 회사의 간부 직원들로 하여금 ‘ 한 직원 한 가정 결연 ’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가정 등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매년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 전달과 함께 출소자들의 합동결혼식에 도꾸준히 참여하는 등 출소자를 이웃으로 맞아 주는 활동도 열심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휴먼클럽으로부터 ‘ 국제휴머니즘대상 ’ 을 수상하면서 상패와 더불어 부상으로 받은 5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사회공헌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를 설립한 198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성욱 회장은 매년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사회에 환원하였다.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가옥 무료 보수와 각종 사회복지 및 교육시설에 기부한 금액만도 30억원에 달한다.

“ 지금의 금성백조가 있기까지에는 저와 임직원의 노력 외에도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업은 지역민과 같이 성장할 때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절 주위의 작은 도움은 정말 큰 빛으로 저에게 힘과 의지가 되었기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욱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